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11.18.(수) 10:00
(지 면) 2026.11.18.(수) 석간

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 선정… 지역문제 공동 해결

- 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6곳 선정… 거점 공간 구축
- 고양·안성·청도·칠곡·부여·홍성에 주민·기업이 함께하는 협력거점 조성
- 주민·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 연결해 돌봄·먹거리·일자리 등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 고양시·안성시, 경북 청도군·칠곡군, 충남 부여군·홍성군 등 6개 시·군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연결해 주민이 겪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점공간이다.

기존 공간지원 사업이 개별 기업의 입주나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혁신허브는 주민·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서로 다른 조직이 만나 공동사업을 기획·실행하는 지역단위 협력체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돌봄부터 일자리까지, 지역 특색 살린 6개 혁신허브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역은 저마다의 지역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생활서비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첫째,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과 생활서비스를 함께 만든다. 고양시는 돌봄단체와 먹거리 기업·청년단체 등이 힘을 모아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청도군은 옛 보건소 건물을 거점으로 지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 협력해 돌봄과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며 일자리를 늘린다. 칠곡군은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매출 증가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홍성군은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권, 협동조합 등이 힘을 모아 지역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새로운 창업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셋째, 주민의 아이디어와 청년의 도전을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한다. 안성시는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지역문제를 직접 제안하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개발해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부여군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다양한 일거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체류공간과 공동실험실을 마련하고, 지역기업·단체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며 창업과 지역정착의 기회를 찾도록 돕는다.

>> 공간 조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혁신허브 사업이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공동사업을 만들어가는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고, 공간 조성과 함께 공동사업의 발굴부터 기획·실행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황순조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주민과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서로 연결되지 못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혁신허브는 단순히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힘을 모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책임자	과 장	염성욱 (044-205-3211)
		담당자	사무관	김성진 (044-205-32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